

일본의 J-IRISS 등록 현황과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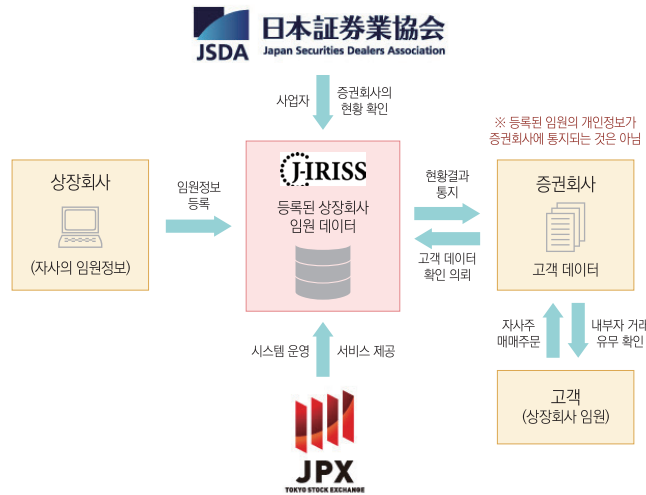
- 일본은 상장회사 임원의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5일부터 J-IRISS(Japan-Insider Registration & Identification Support System)을 가동하고 있음
- J-IRISS는 일본 증권업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 규칙에 따라 1년에 한번 이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장회사의 정보와 J-IRISS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대조할 의무가 있음
- 2009년 5월말 기준 J-IRISS 등록기업은 267개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2월 15일 현재 2,978여개에 이릅니다
- 일본의 J-IRISS는 내부자 불공정거래 방지 및 시장 공정성·투명성 유지 관점에서 경고 및 체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

- 일본은 2009년 5월 25일부터 J-IRISS(Japan-Insider Registration & Identification Support System)을 가동하고 있으며 상장회사 임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함
 - 2006년 6월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및 증권거래소 담당자들 내에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상장회사 임원 등록 시스템 구축이 제안됨
 -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상장회사의 임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증권회사가 자사의 고객 정보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확인함으로써 상장회사 임원에 의한 내부자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J-IRISS를 도입함
 - 시스템 등록을 통해 상장회사 임원에 의한 의도치 않은 불공정 거래 및 상장회사 임원에 의한 증권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
 - 또한 일본은 상장회사 임원이 자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내각 총리 대신에 매매 보고를 해야하는데 J-IRISS를 통해 올바른 고객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누출에 의한 법령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음
- J-IRISS는 일본 증권업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 규칙에 따라 1년에 한번 이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장회사의 정보와 J-IRISS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대조할 의무가 있음
 - 2009년초 일본 증권업협회에서 「유가증권의 인수 등에 관한 규칙」의 일부 개정 및 「인사추천 합동위원회 규칙」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, 도쿄 증권거래소에서도 「금융상품거래법」 및 「거래 참가자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매매 관리 체제에 관한 규칙」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음



- J-IRISS 등록 임원의 범위는 ① 상장회사(REIT 법인과 자산운용회사 포함)의 임원 ② 각 거래소에서의 적시 공개 대상인 비상장회사의 모회사 임원 ③ 상장회사가 순수 지주회사 일 경우 핵심 자회사 1개사의 임원 ④ 상장회사가 REIT 법인인 경우 주요 특정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해당 임원의 경우 J-IRISS에는 등록해야 함
 - 상장회사의 핵심 자회사 및 주요 특정 관계 법인은 일본 증권업협회가 지정함
 - 핵심 자회사 이외의 자회사 임원의 등록도 가능함
- J-IRISS 시스템은 일본 증권업협회로부터 도쿄 증권거래소가 개발 및 관리를 위탁 받았으며 보안과 개인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
 - 전자 인증서를 이용한 내부 사용자 등록 카드로 임원정보를 등록하며 증권회사와 J-IRISS 사이에는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가 없음
 - 증권회사는 임원 등록 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와 일치한 항목(성명, 생년월일, 회사명, 직함 등)만을 수령하게 되며 정보를 새로 취득하거나 등록된 임직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
 - 협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 범위에 두고 엄중히 관리하고 있으며 증권회사 및 상장회사의 시스템 설치비용은 없음

J-IRISS 개요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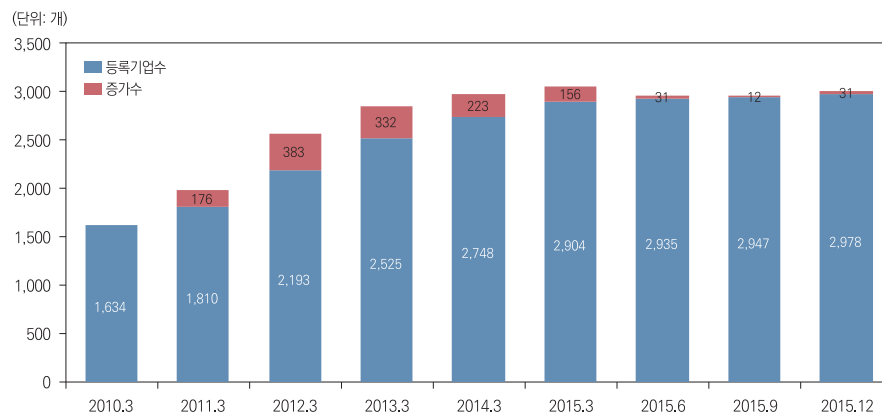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도쿄증권거래소(JPX)

- 2009년 5월말 기준 등록기업은 267개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2월 15일 현재 2,978 여개에 이룸
 - 2013년 2월 기준 등록률은 70.04%로 첫 공식 집계 된 이후 2016년 2월 15일 현재 등록률은 82.22%에 이룸

- 2015년 이후 증가 수는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등록기업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- 상장회사 대표자 이름으로 일본 증권업협회와 일본 내 5개 증권거래소(도쿄, 오사카, 나고야, 후쿠오카, 삿포로)명으로 등록을 요청함
- 시스템 등록에 대한 의무는 없으며 일본증권업협회는 2011년 7월 이후 등록하지 않은 상장회사에 가입 촉진 및 기업 방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

J-IRISS 등록기업수 추이



자료: 일본증권업협회(JSDA)

- 일본의 J-IRISS는 내부자 불공정거래 방지 및 시장 공정성·투명성 유지 관점에서 경고 및 체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
 -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-IRISS 등록기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노력에 따른 반응으로 판단됨
 - 시스템에 등록된 기업은 투자자들에게도 내부자 거래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음
 -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 유지뿐만 아니라 시장의 안정성 유지 및 향상에 의의가 있음

연구원 여밀림